

제3차 제주관광 미래전략 워크숍 결과보고서

제주 미래관광에 대한 대안적 논의

▶ 주최	제주관광공사	
▶ 일시	2016년 3월 21일(월), 15:00~18:00	
▶ 장소	제주웰컴센터 3층 대회의실	
▶ 진행	이 재 홍 제주관광공사 본부장	
▶ 주제발표	김 향 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토론(가나다순)	고 승 익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마케팅국 국장 김 중 기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책임연구위원 서 용 건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신 왕 근 제주관광대학교 항공서비스과 교수 송 규 진 제주YMCA 부설 제주교통연구소 소장 양 성 창 제주항공정책연구소 소장	양 정 철 세계환경과섬연구소 특별연구원 정 승 훈 제주발전연구원 연구기획실 실장 장 문 봉 제주특별자치도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담당 양 필 수 제주관광공사 관광산업처 처장 이 성 은 제주관광공사 경영지원처 처장

- 제주관광공사는 관광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제주관광의 현안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매월 특정 이슈와 관련한 전문가들과의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 본 워크숍을 통하여 보다 다양하고 합리적인 발전적 대안들이 도출되어, 도민의 삶의질 향상과 제주발전에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주의 미래 관광, 준비에 대한 논의

제주 방문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

김 향 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Contents

01. 논의의 배경 및 목적
02. 제주 방문객 현황 및 두 가지 질문
03. 제주의 미래 방문 수요
04. 제주의 인프라 수용능력
05. 소결 및 지속 논의 사항





01. 논의의 배경 및 목적

01. 논의의 배경 및 목적

제주의 미래관광, 준비에 대한 논의

논의의 배경

✓ 제주 방문객의 급격한 증가 추세

- 최근 제주지역은 상주인구 64만 명 돌파하였으며,
- 제주 방문객은 1,3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제주지역 성장 잠재력이 높게 평가됨
- 외국인 방문객(중국)의 증가도 두드러지지만, 내국인의 방문은 2008년부터 연평균 10.8%의 증가율을 보임

✓ 제주도 특성을 감안할 때 방문객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 지속

- 제주 방문객은 2008년 이후 2015년까지 매년 연평균 12.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몇 명이 제주도를 찾을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제시하기 어려움
- 더욱이 제주는 “양적 성장” 대신 “질적 성장”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경제·사회·환경 등 제반환경변화속에서 제주를 찾는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방문객의 증가로 인하여 제주 인프라 수용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의문

- 제주 상주인구의 증가와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상하수도, 에너지, 폐기물 수용력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음
- 이와 함께 방문객이 체류해야 하는 숙박시설의 수급은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발생할 수 있음

01. 논의의 배경

논의의 목적

- ✓ **미래 제주의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대한 대응 필요성에 대한 논의 시작**
 - 본 발표에서는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 관리체계를 구축하기에 앞서 현재의 제주방문객 증가추세를 바탕으로 2030년 방문객 수요를 추정해 보고 이에 대한 수용가능범위를 개괄적으로 판단
 -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두고 시나리오적 기법으로 검토하여 수요에 대한 논의 시작
- ✓ **방문 수요 증가에 대비한 제주 인프라의 수용 가능성 검토**
 - 현재 제주방문객의 수요에 대한 예측과 함께 과연 제주가 어느 정도의 수용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실정
 - 따라서 우선적으로 정주민구 및 유동인구(방문객)를 기준으로 제주의 인프라 수용력에 대하여 검토



제주의 변화에 대한 관광에서의 대응 방향성

▶ 5

01. 논의의 배경

논의의 성격

- ✓ **정교한 수요예측 및 수용능력 분석이라기 보다는 시나리오적 접근**
 - 미래의 수요예측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정교한 예측과정을 거쳐야 하나,
 - 본 발표는 워크숍 자료로 기존의 문헌을 토대로 앞으로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예측해 보고
 - 이를 기존 계획들의 수요추정 결과와 비교하여, 제주 방문객 수요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의의를 둠
 - 이와 함께 제주의 인프라 수용력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한계 수용력에 대하여 점검을 함

논의의 한계

- 제주미래비전이 계획되었으나 2030년에 대한 계획지표(인구지표)는 관리(control) 가능한 부분이 많지 않음으로 여전히 목표 설정지표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음(미래계획의 한계)
- 제주 방문객수요에 대한 계획지표는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제주도의 정책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움(이 역시 사회·경제·환경, 그리고 국제정세 등 제반 여건에 영향을 받음으로 마법의 수(매직 넘버)를 예측할 수 없음)
- 제주 정주민구 및 유동인구가 활동하고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제반 인프라에 대한 수용력은 제주도의 발전모형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에 따라 달라짐(현재는 제주미래비전 방향에 기초하는 것이 타당함)

▶ 6



02. 제주 방문객 현황 및 두 가지 질문

02. 제주 방문객 현황 및 두 가지 질문

제주 발전과 인구변화 추이



02. 제주 방문객 현황 및 두 가지 질문

제주의 미래관광, 준비에 대한 논의

제주도 인구 동향

- 2015년 말 제주 인구는 64만 명 돌파(2013~2014년 연간 16,800명이 늘어 매월 1,000명씩 증가)
- 현재의 증가추세 약 3.0% 이상을 유지한다면, 2016년 말 66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
- 특히, 최근 3년간(2013~2015)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서귀포시가 높게 나타남(2.8%)



<표 2-1> 제주지역 인구증가율

구 분	(단위:%)	
	연평균 인구증가율	최근 3년간 인구증가율
전 체	2.9	2.7
제주시	2.2	2.6
서귀포시	1.9	2.8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 통계연도 및 한라일보 2016년 2월 1일 보도자료

[그림 2-1] 제주지역 인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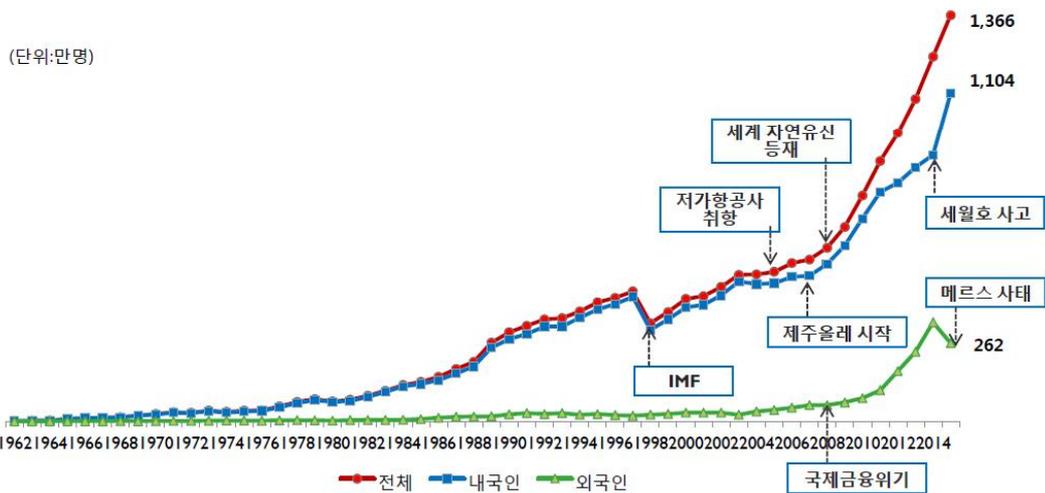
▶ 9

02. 제주 방문객 현황 및 두 가지 질문

제주의 미래관광, 준비에 대한 논의

제주도 방문객 동향

- 2015년 말 기준 제주 방문객 수는 1,366만 명(전년 대비 11.3%)
- 연간 증가율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다가 2015년 다소 감소
-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해 외국인 방문객 감소: 262만 명(전년대비 21.2% 감소)
- 그러나 내국인 방문객은 1,104만 명(전년대비 23.4%으로 전체방문객수의 증가 추세 유지)



[그림 2-2] 제주 방문객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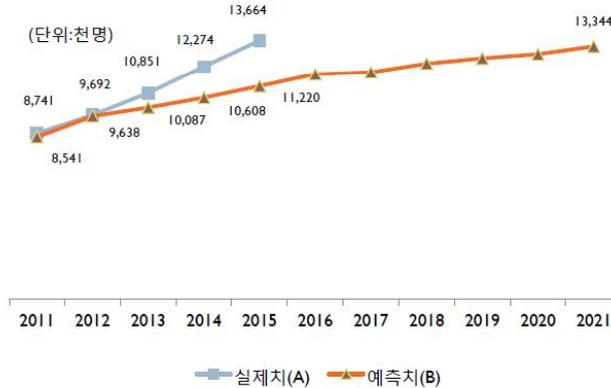
▶ 10

02. 제주 방문객 현황 및 두 가지 질문

기존의 방문객 수요 추정치

(1) 제2차 제주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11~2021)

- 2003년~2010년까지의 증가율(6.5%)에 영향을 받음
- 예측치와 실제치의 차이는 2013년부터 벌어지기 시작
- 2015년 말 기준으로 볼 때 244.4만 명의 차이(예측의 122% 달성)
- 2021년 예측치와 실제치의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예상: 최근 급격한 증가세의 미반영



* 분석자료 : 2003년~2010년 방문객수
* 분석방법 : 연평균성장률에 의한 추세 분석
* 예측시기 : 2011~2021년

<표 2-2> 실제치와 예측치 오차

(단위:천명)

연도	실제치(A)	예측치(B)	오차(A-B)
2011	8,741	8,541	- 200
2012	9,692	9,638	54
2013	10,851	10,087	764
2014	12,274	10,608	1,666
2015	13,664	11,220	2,444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2011),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그림 2-3] 제주 방문객 추정치

▶ 11

02. 제주 방문객 현황 및 두 가지 질문

기존의 방문객 수요 추정치

(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개발계획(2013~2021)

- 1960~2012년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예측
- 근미래 예측인 2013년, 2014년은 예측치와 실제치의 차이가 거의 없음(큰 변화요인 없이 증가한다는 가정)
- 2015년 부터 급격한 차이 발생(내국인의 급격한 증가 요인): 예측의 117% 달성
- 2021년 예측치와 실제치의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예상: 최근 급격한 증가세의 미반영



* 분석자료 : 1960년~2012년 내국인 관광객 수
* 분석방법 : 추세분석법, ARIMA, 지수평활법
* 예측시기 : 2013~2021년 내국인 관광객
*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중국인관광객 및 크루즈 관광객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수요예측 미실시

<표 2-3> 실제치와 예측치 오차(내국인 관광객)

(단위:천명)

연도	실제치(A)	예측치(B)	오차(A-B)
2013	8,517	8,835	-315
2014	8,945	9,136	-191
2015	11,040	9,433	1,607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2013),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개발계획"

[그림 2-4] 제주지역 관광객 추정치

▶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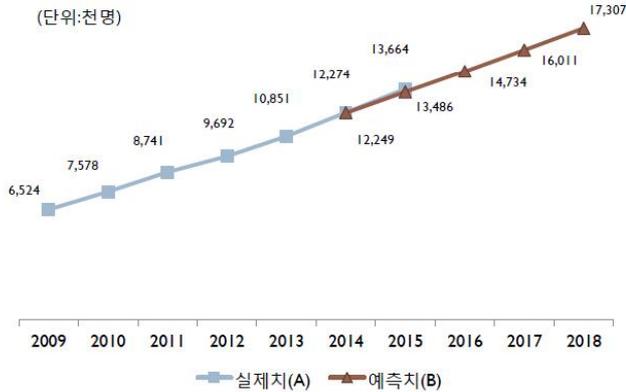
02. 제주 방문객 현황 및 두 가지 질문

제주의 미래관광, 준비에 대한 논의

기존의 방문객 수요 추정치

(3)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계획(2014~2018)

- 2003~2013년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예측
- 비교적 최근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015년의 예측치가 실적치와 가까움
- 근미래의 2018년까지는 실적치와 예측치의 차이는 크게 안 날 것으로 보임
- ※ 변화예상 요인: 중국시장의 성장세에 의한 제주 방문 증가



* 분석자료 : 2003년~2013년 방문객 수
* 분석방법 : 추세분석법, ARIMA, 지수평활법
* 예측시기 : 2014-2018년

<표 2-4> 실제치와 예측치 오차

(단위:천명)

연도	실제치(A)	예측치(B)	오차(A-B)
2014	12,274	12,249	25
2015	13,664	13,486	178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사)제주관광학회(2014),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계획"

[그림 2-5] 제주지역 관광객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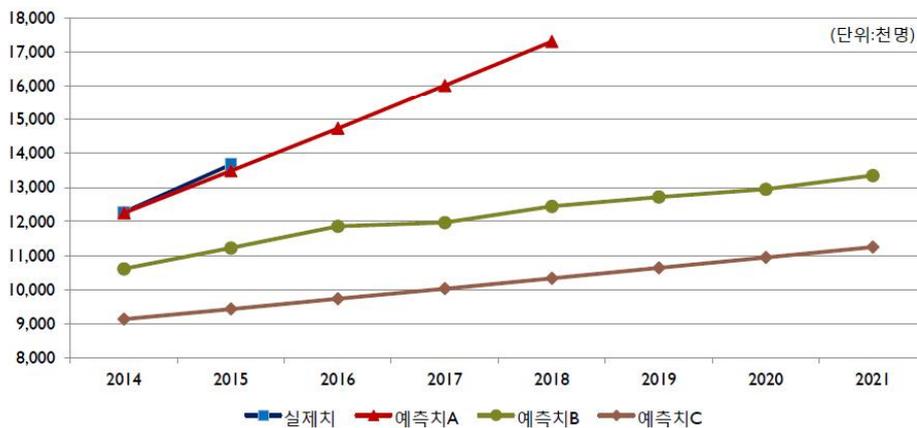
▶ 13

02. 제주 방문객 현황 및 두 가지 질문

제주의 미래관광, 준비에 대한 논의

기존 계획 방문객 추정치 비교

- 2013년 이후 기존 계획들의 추정치중 최근 제주지역 관광객 증가추세에 적합한 예측치는 제2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의 추정치인 것으로 판단(가장 최근에 추정)
- 기존 연구들의 예측치가 실적치와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로는 2012년 이후 급속하게 증가한 크루즈관광객 및 내국인 개별관광객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해석



[그림2-6] 기존 계획의 제주 방문객 추정치 결과 비교

▶ 14

02. 제주 방문객 현황 및 두 가지 질문

미래 시나리오적 접근

✓ 미래의 화두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 강구 필요

- 불확실한 미래를 파악하고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영향력이 큰 미래의 여러 모습을 예측하는 것은 기업은 물론 국가, 지역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유연한 대처 방법을 강구하는 것임
- 제주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제주미래비전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2016년 2월)한 바 있음
- * 여기에서 미래 제주지표는 인구 지표만 제시되어 있음

✓ 미래의 화두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 강구 필요

- 제주도에서 주요 이슈 중에서 신공항 건설, 복합시설 개발 등은 과연 그만큼의 제주 수요가 있을 것인가와 이를 감당해낼 수 있는 가 등이 관심이 되고 있음
- 따라서 불확실함 속에서 미래에 예측 가능한 제주 방문객 지표를 제시하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본 발표에서는 계량적 접근과 시나리오접근을 활용하여 지표를 예측해 봄

✓ 미래연구방법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

- 대부분의 정책결정은 시스템적인 의사결정과정의 도입이 미흡한 실정이며 임의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가 필요함
- ※ 이런 차원에서 미래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제주를 둘러싼 트렌드와 미래지표에 대하여 분석·연구하는 것이 필요함

▶ 15

02. 제주 방문객 현황 및 두 가지 질문

미래 시나리오적 접근

시나리오 영향 요인 설정(제주 관광수요에의 핵심 동인의 분류)

시나리오 영향 요인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군복합형 크루즈터미널(2017완공) • 중앙정부 관광정책(외국인 시장 양적 성장 정책, 내국인 소비증대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신공항 건설 • 제주신항 건설(2030년목표) • 중국정부의 정책(여행 및 해외투자 촉진책 또는 억제정책) • 국내외 기업 등 제주 이전 여부(외국기업, 외국학교, 국내 대기업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및 현지 법인 설립) • 우리나라 관광시장 활성화(소비시장 규모 확대) • 제주도 내 대규모 관광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및 일본의 경제 성장 • 제주만의 독특한 상품(예: 제주 올레) • 관광수요에의 새로운 영향 요인(예: LCC등)
	중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 중인 단지 개발사업 완공(신화역사공원 등)·도시재생의 추진 • 전기자동차 확대 •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관광시장의 활성화(동남아 등) • 크루즈관광 수요 증대 • 제주 융복합 관광산업 발전 • 특화된 관광산업 인적 자원 개발 • ICC 제주 제2센터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정세 변화(국제관계) • 북한의 개방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제주 관광 • 탄소제로섬 정책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의 질적 성장 정책 • 기후변화 정책 	
		낮음	보통	높음

불확실성의 정도

▶ 16

* 주: 제주 관광전문가 5명의 의견 수집

02. 제주 방문객 현황 및 두 가지 질문

제주의 미래관광, 준비에 대한 논의

미래 시나리오적 접근

시나리오 영향 요인 설정(핵심 동인의 그룹화)

내부요인으로 계획 실현 등으로 관광에의 직접적 영향	외부요인으로 실현되면 관광에의 직접적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군복합형 크루즈터미널(2017완공) •제주 신공항 건설 •제주신항 건설(2030년목표) •제주도 내 대규모 관광 개발 •제주만의 독특한 상품(예: 제주 올레) •관광수요에의 새로운 영향 요인(예: LCC등) •개발 중인 단지 개발사업 완공(신화역사공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정부 관광정책(외국인 시장 양적 성장 정책, 내국인 소비증대 정책) •우리나라 관광시장 활성화(소비시장 규모 확대) •중국 및 일본의 경제 성장 •중국 정부의 정책(여행및해외투자촉진책또는역제정책)
내부요인이지만 직접적 영향이 적음	외부요인으로 직접적 영향이 적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제주 관광 • 탄소제로성 정책 실현 • 제주 융복합 관광산업 발전 • 특화된 관광산업 인적 자원 개발 • ICC 제주 제2센터 건립 • 도시재생의 추진 • 전기자동차 확대 •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관광시장의 활성화(동남아 등) • 크루즈 관광 수요 증대 • 국내외 기업 등 제주이전(외국기업, 외국학교, 국내 대기업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및 현지 법인 설립 여부)

▶ 17

02. 제주 방문객 현황 및 두 가지 질문

제주의 미래관광, 준비에 대한 논의

두 가지 질문

가능 시나리오 설정

시나리오	내부요인 직접영향	외부요인 직접 영향	내부요인 간접 영향	외부요인 간접 영향	시나리오	수요 증가
1	큼	큼	적음	적음	제주 관광수요 증가기초의 확대	낙관적 전망
2	큼	적음	큼	적음	제주 자체적인 관광수요 확대 노력	중도적 전망
3	적음	큼	적음	큼	외적 요인에 의한 제주 관광수요 증가 건인	중도적 전망
4	적음	적음	큼	큼	제주 관광수요 증가의 미미	소극적 전망

•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하여 낙관적 전망 시나리오 채택
(미래의 관광수요에 대응한 인프라 등의 준비를 위해서는 낙관적 전망이 적함)

두 가지 질문

Q1: 2030년 제주도 방문객은 얼마나 될 것인가?

- 2030년 제주도에서 계획하는 사업들이 무리 없이 조성되고 제주도를 유인하는 매력적인 관광상품으로 인하여 국내외 관광객이 지금과 같이 지속적으로 제주를 방문한다고 가정(국내관광시장 및 중국관광시장 확대)

Q2: 2030년 제주도 방문객에 의한 제주 인프라의 수용 문제는 없을 것인가?

- 제주미래비전(2016)의 착실한 추진으로 2030년 제주도는 정주인구 및 유동인구의 활동에 있어서 적합한 지역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가정

▶ 18



03. 제주의 미래 방문수요

03. 제주의 미래 방문 수요

제주의 미래관광, 준비에 대한 논의

제주 방문객 수요 추계(2016년~2030년)

(1) 제주 방문객 수요 추계의 전제

- 장기 수요예측 기법으로는 시계열 회귀분석과 시나리오 설정법이 있음
* 이중장망적기법인시계열 회귀분석은 성장한계점 예측이 반박하며, 외부변수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단점을 지님
- 반면, 장기적 추세변동을 파악할 수 있는 비선형 추세에는 지수곡선, s-곡선, 로지스틱 곡선 등이 있으며, 로지스틱 곡선은 관광지 수명주기 이론의 성장한계를 설명하는데 적합함
- 기존 연구들에서 시도한 ARIMA분석은 단기를 정확하게 예측하는데 유용한 기법임.

※ 제주의 관광특성에 맞는 제주 방문객 수요 예측을 위해서는 내국인방문객과 외국인방문객을 별도로 추계하고 다양한 영향요인들을 활용하는 '복합모형'을 개발하여 추정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러나 본 발표에서는 장기 수요예측에 적합한 시계열 회귀분석과 김영표·송재호(2011)의 “관광지 수명주기 연구”에서 사용된 로지스틱 분석으로 미래 방문객 수요를 추계하기로 함
- 이에 따라 본 발표는 1962년부터 2015년까지 관광객 추세만으로 미래 수요를 추계하였으며, 외부상황에 대한 중요변수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지님.
- 따라서 향후 세밀한 방문객 수요추정은 연구과제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 본 발표에서의 수요추계는 향후에도 관광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

- 수요추계의 대전제로 내국인의 증가에서 인구 감소, 관광경험률 정체, 경쟁사회의 심화 등에도 과거 저가항공 운항, 제주올레 열풍 등과 같은 제주 방문의 상승을 유도하는 모멘텀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 숨어 있음(이에 대한 정책 전략이 요구됨)
- 외국인은 중국의 이웃바운드가 대량관광시대를 맞이하여 제주를 지속적으로 방문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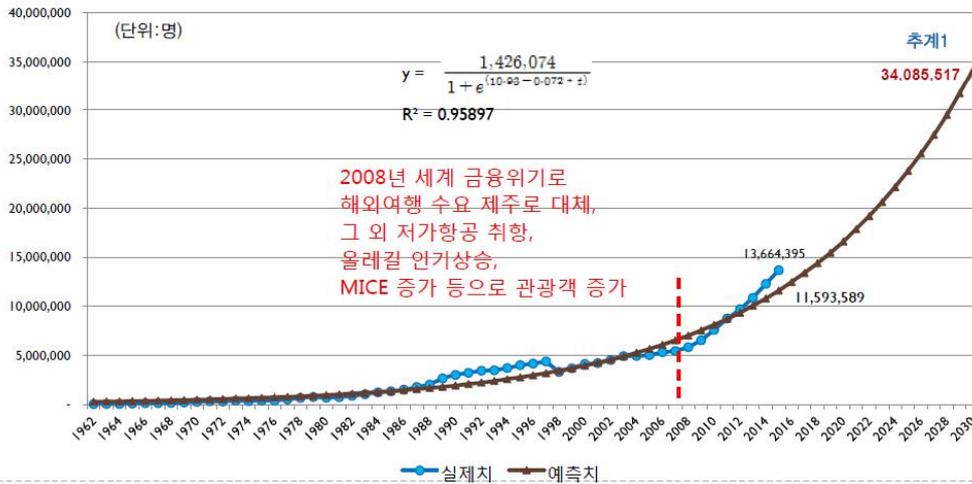
03. 제주의 미래 방문 수요

제주의 미래관광, 준비에 대한 논의

제주 방문객 수요 추계(2016년~2030년)

(2) 로지스틱 추계 결과 ----- 추계1

- 제주 방문객 수요추정 결과, 2030년 전체 방문객은 3,409만 명(로지스틱 추계치)
- 송재호 · 김영표(2011)의 관광지 수명주기 연구에서의 추정치와의 비교
- * 동 연구에서는 1962~2009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2정체시기가 2024년에 시작되는 것으로 분석
그러나 2009년 이후 관광객은 큰 폭으로 성장하였고 이를 고려하여 정체단계가 30년 이후로 넘어간다고 하면 2030년까지의 지속 증가할거라고 가정할 수 있음



▶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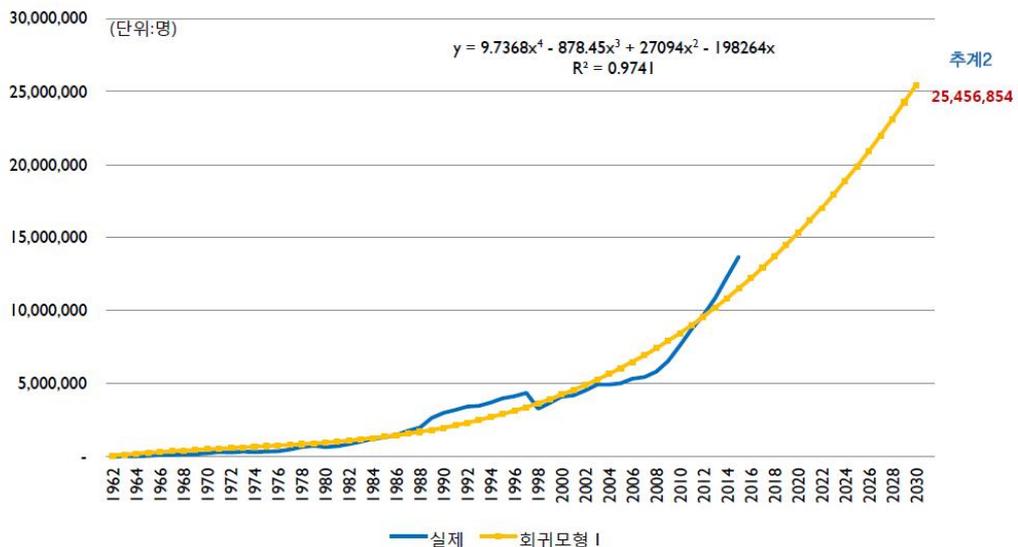
[그림 3-1] 로지스틱 분석에 의한 방문객 수요 추정 결과

03. 제주의 미래 방문 수요

제주의 미래관광, 준비에 대한 논의

제주 방문객 수요 추계(2016년~2030년)

(2) 곡선추정모형 수요 추정 결과 ----- 추계2



▶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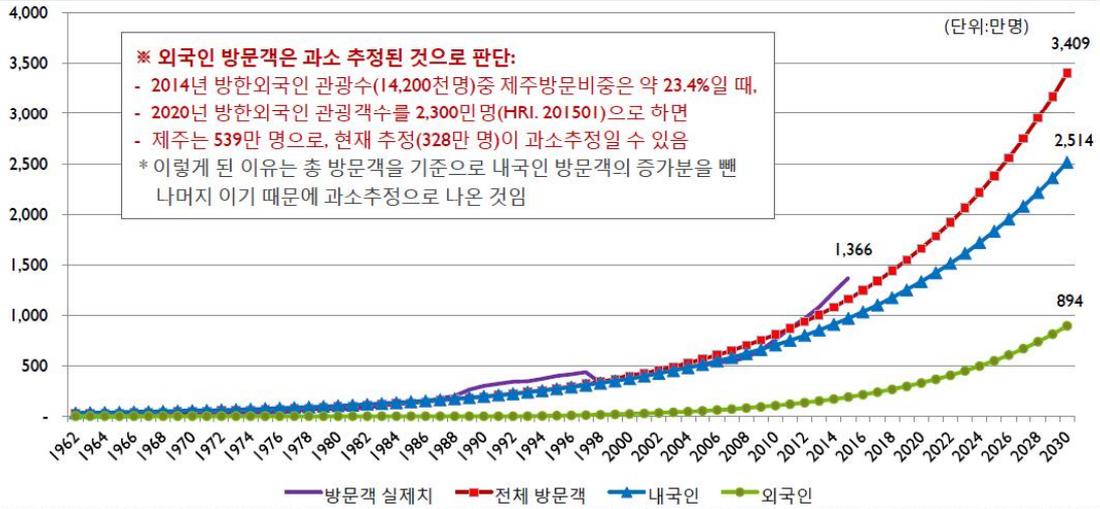
[그림 3-2] 곡선추정모형에 의한 방문객 수요추정 결과

03. 제주의 미래 방문 수요

제주 방문객 수요 추계(2016년~2030년)

(3) 내·외국인별 방문객 수요 추정 1 (총량을 고정시키고 내국인 방문객 수요 추계) — 추계에 산입시키지 않음

- 전체 제주 방문객 수요추정치는 로지스틱 분석에 의한 2030년 총량인 3,409만 명을 고정
- 내국인만 추계한 바, 2015년 1,104만명에서 2030년까지 약 127.7% 증가한 2,514만 명으로 증가 예측
- 외국인의 경우 2015년 262만명에서 2030년까지 약 241.2% 증가한 894만 명으로 증가 예측(과소 추정)



▶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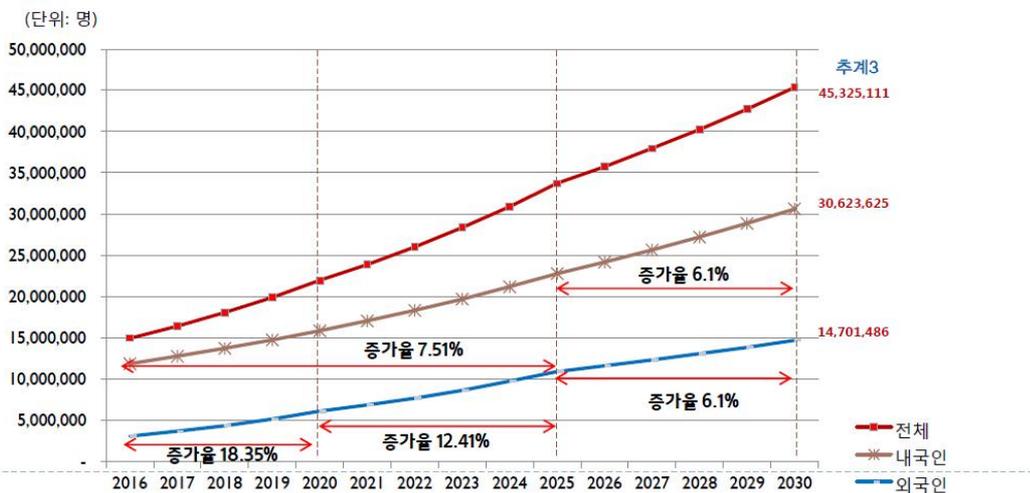
[그림 3-3] 내·외국인별 방문객 수요추정 결과(로지스틱 결과치 수용)

03. 제주의 미래 방문 수요

제주 방문객 수요 추계(2016년~2030년)

(4) 내·외국인별 방문객 수요 추정 2 - 구간별로 증가율 적용 — 추계3

- 제주방문객 수요추정결과, 2030년 전체 방문객은 4,532만 명
- 내국인 증가율: 2016~2025년(2001~2015년 증가율 7.51% 적용), 2026~2030년(1991년 이후 증가율 6.1%적용)
- 외국인 증가율: 2016~2020년(2001~2015년 증가율 18.35% 적용), 2021~2025년(1991년 이후 증가율 12.41%적용)
2026~2030년(내국인 증가율인 6.1% 동일 적용)



▶ 24

[그림 3-4] 내·외국인별 증가율 적용에 의한 방문객 수요추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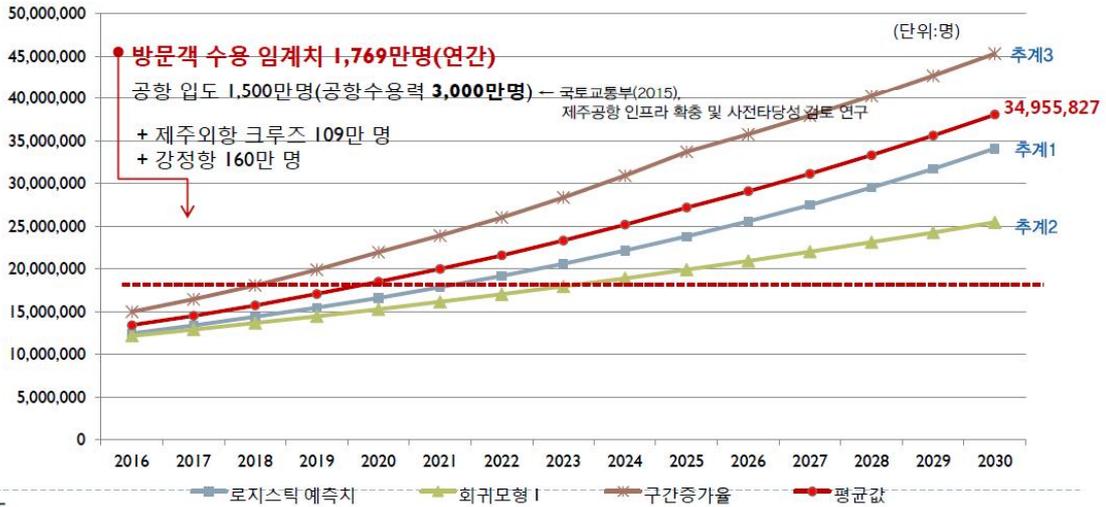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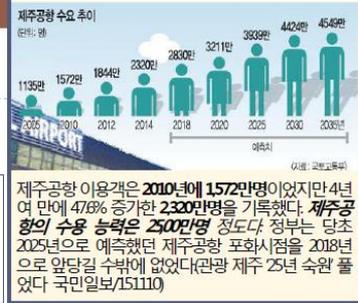
03. 제주의 미래 방문 수요

제주의 미래관광, 준비에 대한 논의

제주 방문객 수요 추계(2016년~2030년)

(5) 수요 추정 종합

- 관광객 수요추정 결과와 제주공항 및 크루즈터미널 수용력을 비교해 본 결과,
- 로지스틱 예측결과로는 2021~21년 방문객 수용 임계치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다항식 추정결과는 2022~23년에 도달할 것으로 나타남
- 구간 증가율 추정결과는 2017~2018년에 도달할 것으로 나타남



[그림 3-5] 2016~2030 제주 방문객 수요 추정치(종합)

03. 제주의 미래 방문 수요

제주의 미래관광, 준비에 대한 논의

제주 방문객 수요 추계(2016년~2030년)

(6) 수요 추정 종합 - 임계치 도달 시기 추정

☞ 관광객 수용 임계치 1,769만 명

(단위:명)

연도	실제치	로지스틱 예측치	회귀모형	구간 증가율 모형
2010	7,578,301	8,090,561	8,438,227	7,578,301
2011	8,740,976	8,694,197	8,991,950	8,740,976
2012	9,691,703	9,342,840	9,572,778	9,691,703
2013	10,851,265	10,039,841	10,181,407	10,851,265
2014	12,273,917	10,788,802	10,818,534	12,273,917
2015	13,664,395	11,593,589	11,484,856	13,664,395
2016		12,458,356	12,181,070	14,975,141
2017		13,387,566	12,907,872	16,436,513
2018		14,386,011	13,665,960	18,069,396
2019		15,458,840	14,456,029	19,898,001
2020		16,611,580	15,278,777	21,950,436
2021		17,850,171	16,134,900	23,897,574
2022		19,180,990	17,025,095	26,027,989
2023		20,610,883	17,950,059	28,360,041
2024		22,147,206	18,910,488	30,914,041
2025		23,797,854	19,907,080	33,712,463
2026		25,571,306	20,940,530	35,768,454
2027		27,476,662	22,011,536	37,949,831
2028		29,523,695	23,120,794	40,264,241
2029		31,722,894	24,269,001	42,719,798
2030		34,085,517	25,456,854	45,325,111



04. 제주의 인프라 수용능력

04. 제주의 인프라 수용능력

제주의 미래관광, 준비에 대한 논의

수용력의 기준

상주인구 설정

- 인구추정 방법은 등차급수, 등비급수, 지수법,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고, 관련 상위계획의 목표연도인 2025년과 2030년을 설정하고,
- 2030년 목표인구는 2025년 목표인구인 **80만 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함
- ※ 제주미래비전(2016)에서는 제주도 상주인구를 80만 명에서 100만 명 사이로 추계하고 있으며, 정책지표로 환경보전적 가치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80만 명을 설정하고 있음

<표 4-1> 2030년 제주도 상주인구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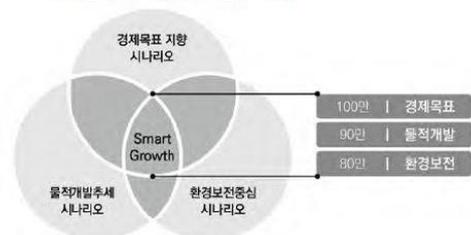
구분	현재		미래
	2010년	2014년	2030
정주인구	577,187	621,550	800,000

주) 1. 2010년, 2014년 정주인구 및 유동(관광)인구는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 통계연보를 기준

[그림 4-1] 기존정책의 보완 또는 개편방향



[그림 4-2] 제주형 인구추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16), 제주미래비전

04. 제주의 인프라 수용능력

제주의 미래관광, 준비에 대한 논의

수용력의 기준

유동인구 설정

- 유동인구는 2030년 제주도 방문객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유동인구 = (방문객수X체재일수)/365), 2030년 제주도 방문객은 앞에서 추계한 3가지 방법을 평균으로 한 34,955,827명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제주미래비전이 갖고 있는 가치가 환경보전적 발전인 바,
- 본 발표에서는 2030년 제주도 방문객을 연간 30,000,000명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함

<표 4-2> 2030년 제주도 유동인구 추계

구분	2030년	환경보전적 제주발전 전략	2030년
추계1(로지스틱)	34,085,517명		30,000,000명
추계2(회귀모형)	25,456,854명		
추계3(구간별 증가율)	43,325,111명		
평균5	34,955,827명		

<표 4-3> 2030년 제주도 상주인구 및 유동인구 추계

구분	현재		미래
	2010년	2014년	2030
정주인구	577,187	621,550	800,000
유동(관광)인구	(7,578,301)	(12,273,917)	(30,000,000)
총인구	649,855	739,245	1,087,671

▶ 29 주) 1. ()는 연간 제주 방문객이며, 관광인구의 정주인구 환산시 평균 체류일수 3.5일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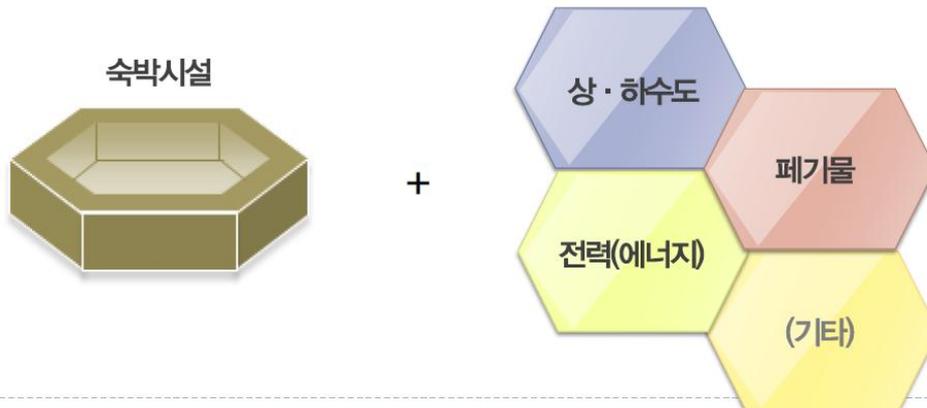
04. 제주의 인프라 수용능력

제주의 미래관광, 준비에 대한 논의

수용능력의 검토

관광 측면에서 수용능력 검토 대상

- 관광측면: 숙박시설 (시간관계상 계산 가능한 호텔(특급)을 중심으로 검토)
→ 향후 모든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한 검토가 필요함
- 관광객 수용능력 측면 점검 사항
 - 상하수도, 전력(에너지), 폐기물 처리(음식물, 재활용, 소각)
 - 이외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



▶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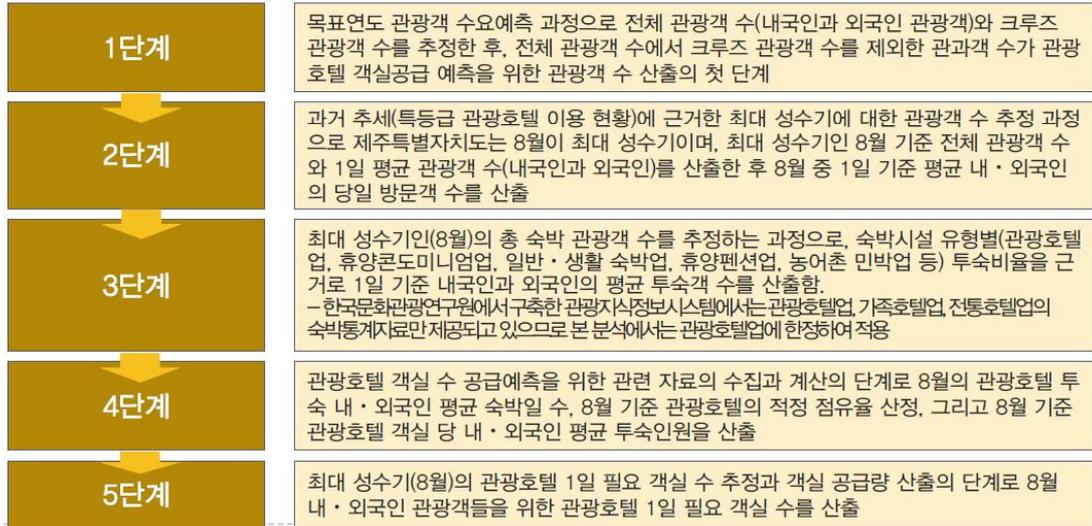
04. 제주의 인프라 수용능력

제주의 미래관광, 준비에 대한 논의

숙박시설(특급호텔) 수용력

호텔(숙박시설) 수요 산출의 전제와 방법

- 제주지역에서의 적절한 숙박객실 공급분석을 위해서 5단계의 개념적 과정을 거쳐 목표연도 최종 숙박(특급 관광호텔) 객실에 대한 수요분석을 시행(정승훈, 2014 연구의 모델 적용)



▶ 31

04. 제주의 인프라 수용능력

제주의 미래관광, 준비에 대한 논의

숙박시설(특급호텔) 수용력

호텔(숙박시설) 수요

- 숙박시설(호텔) 수요 분석단계를 적용하여 2030년의 숙박시설 수요를 추정한 결과(8월 기준) 최대 성수기에 특급 관광호텔 필요 객실 수는 **22,453실**로 도출됨(8월 하루 기준)
- 현재 심의 중이거나 건설 중인 경우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2030년에는 17,072실의 추가 공급이 요구됨(2014년 말 기준 제주지역의 특급 관광호텔 전체 객실수는 5,381실)
- ※ 그러나 이는 최대 성수기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평수기와의 차이를 고려할 경우 과다 공급 우려 있음. 또한 2010~2014년의 통계 자료를 활용한 것임으로 2030년에도 동일할 것으로 보는 것은 한계임

내용	산출식	2025년
A	목표연도 예측된 전체 관광객 수	30,000,000
B	최대성수기 관광객수	$B=A \times 10.3\%$ 3,090,000
C	크루즈 관광객 수	$C=B \times 9.3\%$ 287,370
D	크루즈 관광객을 제외한 관광객 수	$D=B-C$ 2,802,630
E	1일 기준 평균 관광객 수	$E=D \div 31$ 일 90,407
F	1일 기준 총 숙박 관광객 수	$F=E \times 99.11\%$ 89,603
G	특급 관광호텔 1일 총 투숙객 수	$G=F \times 15.624\%$ 14,000
H	특급 관광호텔 1일 이용 총 객실 수	$H=G \times 2.1403$ 박 29,963
I	특급 관광호텔 1일 필요 총 객실 수(85% 객실점유율 적용)	$I=H \div 85\%$ 35,251
J	특급 관광호텔 1일 필요 총 객실 수(1.57명 객실점유율 적용)	$J=I \div 1.57$ 명 22,453

** 분석 방법은 정승훈(2014) 제주지역 관광숙박시설 수요공급분석을 위한 기초연구'를 따름
(단, 특급 관광호텔 1일 필요객실수 산정을 위한 1실당 인원은 2.5명이 아닌 1.57명을 적용(2.5명은 1등급 이하 기준))

▶ 32

04. 제주의 인프라 수용능력

제주의 미래관광 준비에 대한 논의

숙박시설(특급호텔) 수용력

호텔(숙박시설) 수요-설명자료

8월 관광객수	최대 성수기에 대한 관광객 수 추정 과정으로 제주도는 8월이 최대 성수기이며, 과거 5년간(2010~2014년) 제주도 8월 관광객 비율은 10.3%로 산출됨.
8월 크루즈 관광객	현재 제주도에 크루즈선을 통해 방문하고 있는 크루즈 관광객은 숙박 관광객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목표연도 8월 크루즈 관광객 수를 산출한 후 이를 8월 관광객 수에서 제외하였으며, 8월의 크루즈 관광객 비율은 전체 관광객 대비 9.3%로 산출됨(이는 2015년 기준치).
8월 중 1일 기준 총 숙박 관광객 수	<p>- 과거 제주도 관광객 추세에 따르면 8월 기준 내·외국인 관광객 비율은 내국인이 83.0% 정도이며, 외국인은 17.0%내외로 나타났기 때문에 목표연도 2025년 8월 중 1일 기준 평균 관광객 수 79,855명에 83.0%를 곱하여 내국인 1일 평균 관광객 수를 산출하고(66,280명=79,855×83.0%), 17%를 곱하여 외국인 1일 평균 관광객 수(13,575명=66,279×17.0%)를 산출함.</p> <p>- 8월 내·외국인 당일 방문객을 산출하기 위해 활용한 자료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방문 내국인 관광객 실태조사와 2012년과 2014년 제주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8월에 내국인 관광객 당일 방문객의 평균 비율은 0.67%, 외국인 관광객 당일 방문객 평균 비율은 2.3%인 것으로 분석되었음.</p> <p>-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8월 중 1일 기준 내국인 당일 방문객 수는 목표연도 2025년에 444명(66,280×0.67%), 외국인 당일 방문객 수는 312명(13,575×2.3%)으로 계산되었음.</p> <p>- 따라서 2025년 기준 내국인 총 숙박 관광객 수는 65,836명, 외국인 총 숙박 관광객 수는 13,263명으로 79,099명으로 분석되었음.</p>
특급 관광호텔 1일 필요 객실 수	기준에 적용하였던 1실당 2.5명 이용은 1등급 이하의 경우이며, 특급은 1.57명을 기준으로 함

▶ 33

04. 제주의 인프라 수용능력

제주의 미래관광 준비에 대한 논의

상하수도

상하수도 시설 현황

- 상수원 및 상수도 시설에 대한 공급 시설의 부족과 하수도시설 부족 우려에 따라 향후 제주도가 지향해야 할 인구성장 규모의 설정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구에 대해 인구 수용태세 분석을 통해 정책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제주미래비전, 2016)

- 2014년 기준 총인구 621,550인 중 급수인구는 621,550명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100%임 (총 급수량은 405,928㎥/일이며, 1인1일 급수량은 653ℓ 임)
-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보급은 2014년 현재 총인구 621,550명에서 하수처리 인구가 566,484명이며, 보급률은 91.1% (제주지역의 하수관거 시설은 2014년 기준으로 3,854km 구축되어 있으며, 관거시설율은 67.8%)

<표 4-4> 제주 상수도 현황 (단위: 명, %, ㎥/일, ℓ)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인구(명)	577,187	583,284	592,449	604,670	621,550
급수인구(명)	577,187	583,284	592,449	604,670	621,550
보급율(%)	100	100	100	100	100
시설용량(㎥/일)	511,125	506,825	452,825	452,825	460,725
급수량(㎥/일)	347,134	362,724	370,115	394,576	405,928
1일급수량(ℓ)	604	621	624	657	657

* 주: 급수인원을 정주민구로만 산정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16), 제주미래비전

▶ 34

<표 4-5> 제주 하수도 현황 (단위: 명, km,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인구	지역별	577,187	583,284	592,449	604,670	621,550
	처리	502,481	513,349	528,254	541,307	566,484
관거	계획	4,672	5,554	5,461	5,579	5,684
	시설	3,411	3,615	3,694	3,769	3,854
처리율	인구	87.1	88.0	89.2	89.5	91.1
	시설	73.0	65.1	67.6	67.6	67.8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16), 제주미래비전

04. 제주의 인프라 수용능력

제주의 미래관광 준비에 대한 논의

상수도

상수도 공급 예측

<표 4-6> 제주상수도 공급

(단위: 톤, 명)

1일 시설용량 (2014년)	인구(2014년)	2014년 1일 사용량	2030년 추정인구	2030년 사용예상량
460,000	739,245	175,350	1,087,671	249,534

주: 개별지하수 허가에 따른 사용은 별도의 사항으로 상수도에는 반영치 않음
2014년 인구는 정주민구+유동인구

오수 처리용량 예측 (* 하수도 부분은 오수발생량에 따른 처리용량으로 산출)

<표 4-7> 제주 오수처리용량

(단위: 톤, 명)

1일 처리용량 (2014년)	1일 오수발생량 (2014년)	인구(2014년)	1일 1인당 오수발생량	2030년 추정인구	2030년 1일 오수발생량	여유율
231,500	174,266	739,245	0.236	1,087,671	256,690	110.88%

주: 오수발생량은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 통계연보를 기준

▶ 35

04. 제주의 인프라 수용능력

제주의 미래관광 준비에 대한 논의

전력(에너지)

전력 수급 계획

- 2014년 제주 전력수급 현황은 4,220,088MMh이며 산업용이 42.0%, 서비스업이 35.2%를 차지
- 제주도는 전력을 스마트그리드 확산을 통하여 제주를 글로벌 에너지 선도시로 육성해나가고자 함(제주미래비전 2016)
- 제주는 2030년 전 지역 스마트그리드 확산 시 전력수급은 전체 설비용량에 신재생 에너지가 3,200Mw 로 55.6%를 담당하며, 신재생에너지 총 발전량은 11,496GWh 로도 전체 전력 필요량인 11,334GWh를 충족함

<표 4-8> 제주 전력수급현황

(단위: MWh)

연도	합계	가정용	공공용	서비스업	산업용			기타
					소계	농림수산업	제조업	
2010	3,574,624	602,705	219,642	1,629,902	1,115,559	950,177	165,382	6,816
2011	4,039,820	633,093	141,669	1,471,484	1,463,884	1,025,616	438,218	329,690
2012	4,207,704	634,237	243,851	1,721,761	1,257,861	1,063,135	194,726	349,994
2013	4,094,896	678,810	155,638	1,441,972	1,675,016	1,192,205	482,811	143,660
2014	4,220,088	688,409	157,593	1,486,651	1,771,662	1,275,935	495,727	135,773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2015. 「2015 주요행정총람」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16), 제주미래비전

<표 4-9> 제주 전력수급계획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20년	~2030
설비용량(MW)	1,155	1,277	1,567	1,702	3,225	5,755
화력발전	590	590	590	590	735	655
신재생발전	165	282	357	482	1,420	3,200
기타설비	400	405	620	630	1,760	1,900
공급능력(MW)	930	989	1,093	1,120	1,760	3,017
최대전력(MW)	720	757	801	848	1,006	1,778
공급예비율(%)①	29	31	39	32	75	70
하계 공급예비율(%)②	-	28	22	16	28	14
전력필요량(GWh)						
도 전체	4,580	4,827	5,283	5,600	6,746	11,334
전기차	2	18	40	95	416	2,158
전기차점유율(%)	0.04	0.4	0.8	1.7	6.2	19

주 1: 공급예비율 산정식 = (공급능력-최대전력)/최대전력

주 2: 하계공급예비율: 운영자설비(수업자 및 전력거래소)에 의한 출력제어가 어려운 풍력발전설비에 대하여 여름철이동률(육상 12.9%)을 적용한 예비율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2015.9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2015~2030) 종합계획」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16), 제주미래비전

▶ 36

04. 제주의 인프라 수용능력

제주의 미래관광 준비에 대한 논의

전략(에너지)

에너지 시설 (에너지 시설은 2025년까지만 분석)

연도	월	발전설비	설비용량 (MW)	HVDC 용통량 (MW)	총용량(MW)		최대전력 (MW)	설비 예비율 (%)
					하계	연말		
2014	12	기존설비	601	300		901	762	18.2
							1,003	1,004
2015	6	신재생에너지	2					
	12	신재생에너지	2					
2016				400	1,007	1,011	778	29.4
2017	6	신재생에너지	3					
	12	신재생에너지	3					
2018				400	1,165	1,168	814	43.1
2018	1	폐지 - 제주GT#3	-55					
	6	제주복합	200					
	6	신재생에너지	3					
	12	신재생에너지	3					
2019				400	1,171	1,175	833	40.6

▶ 37

04. 제주의 인프라 수용능력

제주의 미래관광 준비에 대한 논의

전략(에너지)

에너지 시설(계속)

연도	월	발전설비	설비용량 (MW)	HVDC 용통량 (MW)	총용량(MW)		최대전력 (MW)	설비 예비율 (%)
					하계	연말		
2020				400	1,179	1,182	853	38.2
2021	6	신재생에너지	4					
	12	신재생에너지	4					
2022				400	1,185	1,188	870	36.2
2023	6	신재생에너지	3					
	12	신재생에너지	3					
2024				400	1,191	1,195	888	34.1
2025				400	1,198	1,201	905	32.4
2025	6	신재생에너지	3					
	12	신재생에너지	3					
2025				600*	1,204	1,208	920	30.9
2025				600*	1,411	1,415	935	50.9

▶ 38

04. 제주의 인프라 수용능력

제주의 미래관광, 준비에 대한 논의

폐기물

쓰레기 처리 현황

- 제주의 쓰레기 발생량은 계속 증가하고 처리시설이 포화가 예상되나 시설 설치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
 제주 쓰레기 배출량은 전국 평균 1일 쓰레기배출량보다 높음. 이와 같은 급격한 쓰레기 증가는 관광객 및 인구 증가,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쓰레기 처리구역의 확대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 평균 1일 쓰레기배출량은 전국 최고인 상황에서, 매립시설과 소각시설 용량은 2019년 포화가 예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매립 매립장(210,148㎡) 및 소각장(500톤/1일)은 동북리에 건설 예정으로, 2025년 제주공항 인프라 확장에 따른 관광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처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표 4 10> 제주도 쓰레기 발생량

(단위: 톤/일)

연도별	합계	소각		매립		재활용			비고 (전년도증감률)
		%	%	%	%	재활용품	음식물		
2010	638.8	179.2	28.1	122.1	19.1	337.5	52.8	170.8	166.7
2011	764.7	198.1	25.9	156.6	20.5	410.0	53.6	213.6	196.4
2012	861.9	203.9	23.7	179.9	20.9	478.1	55.4	278.0	200.1
2013	984.2	273.4	27.8	194.6	19.8	516.2	52.4	331.6	184.6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2015.5 「생활쓰레기 처리체계 개선 종합대책」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16), 제주미래비전

<표 4-11> 인당 1일 발생량 비교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제주도 (kg/일)	0.97	1.13	1.24	1.35
전국 (kg/일)	0.96	0.95	0.95	0.94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2015.5 「생활쓰레기 처리체계 개선 종합대책」

<표 4 12> 제주도내 매립시설 현황

(2015년 9월 현재, ㎡)

매립장명	조성면적	매립량	향후 매립가능량	조성시기	만료기간	
제주시	회천	203,320	2,037,306	92,694	1992.1.	2016.12.
	동부	7,290	24,463	24,565	1999.5	2018.12.
	서부	20,500	73,755	32,561	2002.11	2018.12.
	추자	2,000	1,163	7,671	2009.10	2024.12.
	우도	2,790	7,577	3,162	1999.10	2026.12.
서귀포시	색달	60,824	379,026	155,344	1997.7	2019.12.
	남원	6,350	39,521	10,212	1995.1	2023.12.
	성산	5,362	22,995	11,090	1995.1	2029.12.
	표선	6,452	13,848	15,404	1901.3	2027.12.
인력	7,315	12,585	11,495	1902.7	2017.6.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관리과 내부자료

▶ 39

04. 제주의 인프라 수용능력

제주의 미래관광, 준비에 대한 논의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단위: 톤, 명)

1일 처리용량 (2014년)	1일 음식물 발생량 (2014년)	인구 (2014년)	1일 1인당 음식물 발생량	2025년 추정인구	2030년 1일 음식물 발생량	여유율
156	179	739,245	0.00024	1,087,671	261	167.31%

주: 음식물폐기물 발생량은 2014년 실제 발생량을 조사하여 적용

재활용 폐기물

(단위: 톤, 명)

1일 처리용량 (2014년)	1일 재활용 발생량 (2014년)	인구 (2014년)	1일 1인당 재활용 발생량	2030년 추정인구	2030년 1일 재활용 발생량	여유율
105	37	739,245	0.00005	1,087,671	54	51.43%

주: 재활용폐기물 발생량은 2014년 실제 발생량을 조사하여 적용

소각폐기물

(단위: 톤, 명)

1일 처리용량 (2014년)	1일 소각발생량 (2014년)	인구 (2014년)	1일 1인당 소각발생량	2030년 추정인구	2030년 1일 소각발생량	여유율
270	189	739,245	0.00026	1,087,671	282	104.44%

▶ 40 주: 소각폐기물 발생량은 2014년 실제 발생량을 조사하여 적용

05. 소 결 및 지속 논의 사항

05. 소 결 및 지속 논의 사항

제주의 미래관광, 준비에 대한 논의

소 결

최근 제주 인구 유입 및 방문객 증가로 인하여 수요 및 수용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

- 현재 제2공항 건설, 민군복합형 크루즈터미널 건설 등 인프라 개발 사업이 진행 중임

기존 제주지역 수용력 추정결과 검토결과 현재 관광객 현황과의 차이가 발생

- 특히, 2012년 이후 가파른 관광객 증가추세로 인한 차이 발생

2030년까지 관광객 수요추정 결과, 평균 34,955,827명으로 산출(목표는 3천만 명으로 설정)

- 2030년까지 관광객 수요추정결과, 최소 25,456천명에서 최대 100,516천명
- 1962년~2015년 관광객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시계열 분석 및 구간 증가율(시나리오) 적용
- 현재 제주공항의 방문객 수용 임계치는 1,769만명으로 예상(빠르면 2018년 후반, 늦으면 2023년 후반 임계치에 도달)

2030년 제주 방문객을 수용하기 위한 특급호텔의 필요 객실수는 22,453실로 산출

- 2014년 말 기준 제주지역의 특급 관광호텔 전체 객실수는 5,381실
- 현재 심의 중이거나 건설 중인 경우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2030년에는 17,072실의 추가 공급이 요구

2030년 정주민구+유동인구는1,087,671명으로 설정, 이에 대한 인프라 수용능력 산출

- 상수도 공급, 재활용 폐기물, 소각폐기물 처리 인프라는 무리 없으나 지속적으로 관리 필요
- 오수발생량, 음식물 폐기물 처리에는 수용능력의 한계치를 초과함으로 이에 대한 대응 필요

05. 소결 및 지속 논의 사항

지속 논의 사항(제언)

제반 영향 요인을 토대로 한 정교한 제주 방문객 수요예측 추진 필요

- 내국인, 외국인의 제주 방문 목적과 증가율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 자료 확보 필요
- 제주도의 방문매력의 지속성, 중국관광시장의 확대 및 유치가능성 등을 검토

제주도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치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연구 필요

- 2030년에는 제주가 국내적, 국제적으로 어떤 위상과 전략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 논의 필요
- 제주가 지향하는 환경보전 가치를 유지하면서 최대 수용가능 능력이 어디까지 인지에 대한 분석 필요

제주의 수용 능력 한계치를 극복 혹은 관리할 수 있는 전략 필요

- 제주 방문객의 수용방법(분산시킬 것인가 혹은 집중시킬 것인가 등)에 대한 전략
- 한계치에 도달하는 인프라에 대한 공급 및 관리 전략 등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여문화하여 정책에 반영

- 분야별 연구와 함께 정기적인 전문가 토론회 추진
- 제주 발전에 중요한 사안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함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제주의 미래관광 준비에 대한 논의

미래연구방법론

- 미래를 연구하는 방법론으로는 미디어 분석, 델파이조사, 시나리오 기법, AHP기법, 퓨처스 휠, 교차영향 분석, 환경 스캐닝, 모델링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음
- 미래 연구방법론 중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고 가장 그 틀이 진화되어 있는 방법론은 시나리오 기법임(미래에 일어날 개연성이 높고 인간과 사회에 그 영향력이 클 가능성들을 추려내어 이를 제시하는 방법임)

<표 1> 미래 연구방법론의 구분

구분	미래연구방법론
판단을 모을 때	천재(Genius), 델파이(Delphi), 퓨처스 휠(Futures Wheel), 그룹미팅(Group meetings), 인터뷰(Interview)
시계열과 다른 양적 방법 예측하기	계량경제학(Econometrics), 트렌드 영향분석(Trend Impact Analysis),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구조분석(Interviews)
사건, 유형 그리고 움직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	시스템 역학(System Dynamics), 에이전트 모델링(Agent Modeling), 교차 영향분석(Cross Impact Analysis), 결정 트리(Decision Trees), 퓨처스 휠(Futures Wheel), 시뮬레이션 모델링(Simulation Modeling), 다중 전망(Multiple perspective), 인과계층분석(Casual Layered Analysis), 분야의 예외 완화(Field Anomaly Relaxation)
불확실성 하의 행동을 정할 때	결정 분석(Decision Analysis), 로드맵핑(Road Mapping), 기술적 연속 분석(Technology Sequence Analysis), 천재(Genius)
그렇듯한 대안 미래 제시	시나리오(Scenario), 퓨처스 휠(Futures Wheel), 시뮬레이션 게이밍(Simulation Gaming), 에이전트 모델링(Agent Modeling)
미래가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 관계 성립	미래의 상황(State If The Ruture Index)
변화와 가정 추적	환경 스캐닝(Environmental scanning),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시스템의 안정성 확인	비선형 기법(Non linear techniques)

자료: 박영숙·제품 글렌·테드 고든(2007), 전략적 사고를 위한 미래예측, 교보문고

▶ 45

참고자료

제주의 미래관광 준비에 대한 논의

시나리오 방법론

- 시나리오는 결정과 결과를 설명하는 인과관계 고리의 연속으로 명확한 미래 묘사와 현실을 이어주는 이야기라 볼 수 있음(한마디로 시나리오 방법론은 사회 변화 현상을 주목하여 트렌드를 포착하고, 트렌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래의 모습을 예측하는 방법임)

- 시나리오는 하나의 예언이나 예상이 아닌 미래의 발언들을 체계화하는 수단이며, 입안자가 이러한 상황에 의한 문제와 도전 그리고 기회를 명확하게 조사하고 파악할 수 있다는 게 명백해야 됨
- 시나리오는 특정 예측의 예보가 아니라 무엇이 일어날 지에 대한 가능성들을 설명하기 위해 사건들과 추세들을 전개 과정에 따라 나열함

좋은 시나리오

1. 인과관계와 결정들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이성적 수단이 있어야 하며
2. 내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이는 대안으로 제시된 시나리오들을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 비슷한 주제를 다루어야 하며,
3. 결정과 가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미래를 실제적으로 만드는 흥미와 재미를 유발해야 함
대부분의 시나리오 공통점은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 사전준비 작업으로 '질문을 명확히 하는 것', '알고자 하는 미래의 시간적 지평을 명확히 하는 작업' 임.

(예시): 시나리오 방법론을 활용

첫 번째 단계: 핵심동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단계로 이는 먼저 핵심동인에 대한 조사를 하여 영향력과 불확실성에 따라 핵심동인을 분류 및 그룹화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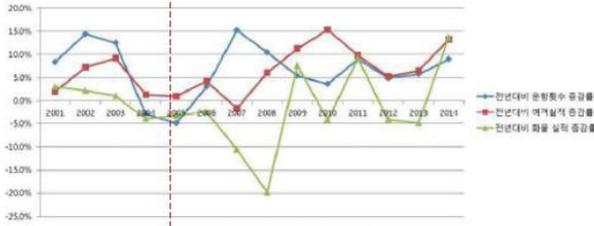
두 번째 단계: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단계로, 첫 번째 단계에서 그룹화된 핵심동인을 기초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도출하여 구체화시키고 각각의 시나리오는 제주 방문객 수요 증가에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를 서술

세 번째 단계: 도출된 시나리오에 발생가능성을 전문가 조사를 통해 측정

▶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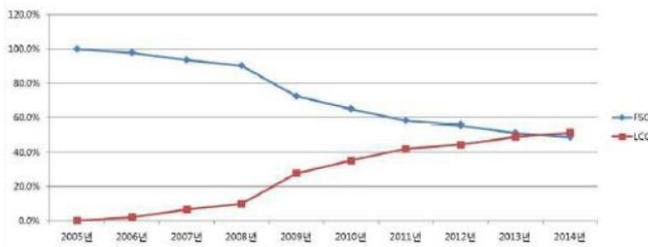
참고자료

제주공항 항공운항 실적 변화



[그림 1] 제주공항 항공운항실적 증감률(2001년~2014년)

- 2005년 이후 LCC등장으로 제주도 항공시장의 공급량 증대가 나타남
- 제주도 국내 여객은 2001년~2014년 연평균 증가율 6.7%를 보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8.7%의 성장세를 보임
- 2005년을 기점으로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2001~2005년 연평균 증가율 4.6%였으나 LCC등장 이후 2006~2014년 연평균 증가율은 8.1%로 약 2배 증가



[그림 2] 국내노선 FSC 및 LCC 점유율

- 현재 총 5개의 LCC업체가 운영 중
- 2005년 한성항공과 제주항공의 시장진입을 시작으로 2007년 에어부산, 진에어, 이스타항공, 2010년 티웨이 항공 취항
- 2006년 이후 빠르게 성장한 수요 실적은 LCC가 제주노선 운송실적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봄
- 전체 국내선 보다 제주노선에 수익성이 높아 항공사가 지속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여객 유인을 위한 운항 할인, LCC이미지 개선 등이 저가항공사의 성장의 주요 요인

자료: 국토교통부(2015).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최종보고"

참고자료

현실적합성 검토 자료 - 제주공항 수요 예측

- 국토교통부(2015)에 의하면 현재 제주공항 수용 임계치 3,000만 명에 도달하는 시기는 2018년으로 예상
- 제2공항 완공시기는 2025년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



자료: 국토교통부(2015).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최종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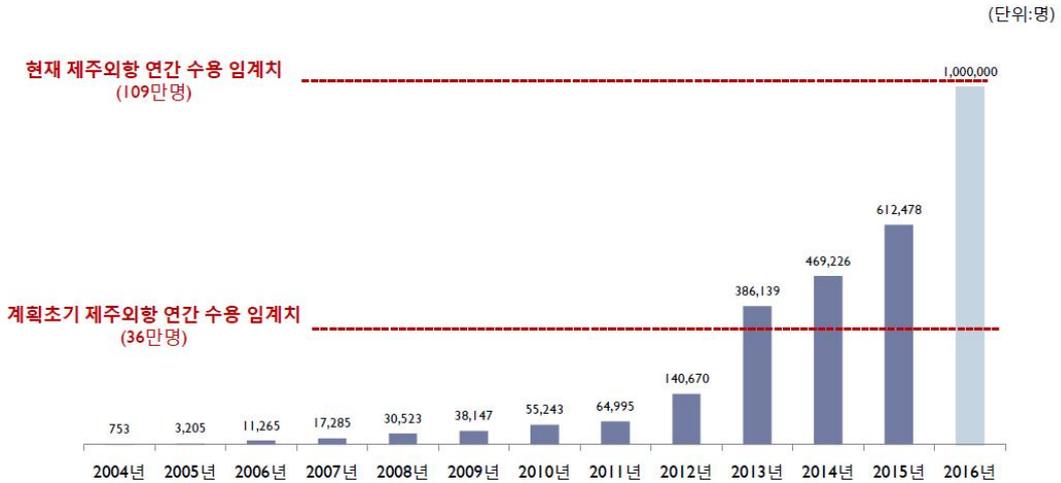
[그림 3] 2035년 제주공항 수요예측 및 연간 수용력 임계치

참고자료

제주의 미래관광 준비에 대한 논의

현실적합성 검토 자료 - 제주 국제터미널 연간 수용 능력

- 계획초기 제주국제여객터미널 동시최대 수용력은 365,000명(1,000명 X 365일)이었으나,
- 현재는 1시간 최대수용력 3,000명까지 가능한 수준임.
- 따라서 단순계산에 의하면 연간 수용인원은 1,095,000명(3,000명*365일)인 것으로 파악됨.



[그림 4] 제주 크루즈 관광객 동향 및 제주외항 연간 수용 임계치

▶ 49

참고자료

제주의 미래관광 준비에 대한 논의

제주 크루즈 현황 및 전망

- 2014년 국내 크루즈 관광객(기항지 기준)은 105만 명(13년 대비 31.3% 증가), 1조원 이상의 소비지출로 나타나며 특히 제주(59만, 55.8%), 부산(24만, 23.1%), 인천(18만, 17.3%) 등으로 제주에 크루즈 관광객이 집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제주 방문객 중 외항선(여객 크루즈) 이용 비율의 11.7%로 급증하고 있음

[그림 4-2] 연안여객선 및 외항선(여객크루즈) 이용객 현황



[그림 4-2] 제주 크루즈 입항 전망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관광객수	100만명	160만명	160만명	180명	200만명
입항횟수	500회	800회	800회	900회	1,000회

- 크루즈선사별 초대형 신규 크루즈선 제주기항 희망
 - 판텀호(16만7천톤) : RC, 2017년 기항
 - 퀴메리2호(15만5천톤) : 카니발그룹, 2017년 기항
 - 스타크루즈(15만톤급) 2척 : 스타크루즈, 2017년 기항
 - 비스타급(22만5천톤) : MSC크루즈, 2017년 기항

▶ 50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 2015

주요 토론내용



사회 : 이 재 흥 제주관광공사 본부장

바쁘신 가운데 제3차 제주관광 미래전략 워크숍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워크숍은 제주관광의 수용력과 이에 따른 제주관광의 인프라 수용태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현재 제주에서는 제2공항이라는 큰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한쪽으로는 신항 개발이라는 새로운 국가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으로 결정되었다고 하여도 실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는 똑같이 될 수 있을런지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점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뤄진다고 전제하였을 때 제주의 미래그림은 어떻게 그려질 것인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난번에 발표된 제주 미래비전만 하더라도 과연 미래비전을 봤을 때 2030년 인구부터 제주도 관광의 사이즈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에 따른 사회적 수용력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구체적인 언급이 미흡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그룹과 언론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닌 관광적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화두를 던지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제주 관광업계에서는 수용력과 관련하여 현재 제주도내 호텔의 수용력이 적다 또는 과다하다 라는 논의를 떠나 대체 우리가 수용력을 어느 정도로 보기 때문에 그런 논쟁이 있어야 되는지, 어느 정도까지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인지 등과 관련한 기본적인 토론이 필요합니다.

주요 토론내용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를 하고 토론을 해야 하는데 짧은 기간 동안 김향자 박사님께 부탁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내에 준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향자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몇 가지 제안 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 성 창 제주항공정책연구소 소장

국토교통부가 발표가 2014년 9월에 발표한 제주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보고서 내용에는 2030년에 국내선 여객은 3천886만명 국제선 여객은 588만명 4천4백24만명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사람 오고가는 사람을 포함한 것입니다. 방문객 또는 관광객을 살펴보기 위해 입도 기준으로 이를 살펴보면 2천2백60만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주공항이 수용력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추정된 수치입니다. 작년 제주공항을 이용한 고객은 2천6백20만명, 입도승객만 1310만명에 이릅니다. 제주도의 통계에 의하면 2015년도 전체 입도승객은 1366만명이었으며, 그 중에서 항공편으로 들어온 관광객은 1237만명입니다.

전체 제주도 입도 항공승객에서 도민과 비즈니스 방문객을 제외한 관광객은 대략 94%라 추계하였다. 그와 같은 기준으로 항공수요조사에 2030년 입도 항공 승객 2200만명 중에서 관광객 94% 보면 항공만으로는 보면 2028만명이 될 것입니다.

제주도에 들어오는 입도 관광객 수송률을 비교하면 선박에 경우 항공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항공수요조사에 따른 항공관광객 2028만명에 그 10%를 합하면 2030년 총 관광객수는 2275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주요 토론내용

이는 지금 현재보다 인바운드만 천만명이 더 온다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수요에 상관없이 항공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늘어나는 수요에 따른 수용태세는, **장기적으로 제2공항을 건설 단기적으로는 현재공항을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터미널의 수용능력은 국내선일 경우 연간 2326만명 국제선일 경우 263만명으로 합하면 총 2589만명이 되지만, 이런 수용능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활주로는 2018년에, 국내선 터미널은 2017년, 국제선 터미널은 2016년 금년에 포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여객청사의 경우는 작년에 벌써 수용능력을 넘어섰습니다.

운항수요가 고시용량에 근접하면 운항횟수가 늘어날 수 없게 되고 항공기 지연은 급격이 늘어나게 됨으로 서비스 수준이 저하됩니다. 공항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면 항공기를 추가적으로 투입할 수 없어서 수요를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국민의 이동거리 제한을 받게 되고, 항공기 관광성장은 둔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항공현장에서는 항공편 예약도 어렵게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제 2공항은 입지도 결정됐고 이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변수가 걸리지 않는다면 십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2공항이 완공될 경우 수용능력은 연간 2500만명으로, 현재 제주공항이 2500만명을 포함하여 도합 5천만명을 수용하기 위한 태세를 갖추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십년 후가 아닌 당장 수용능력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단기계획으로서 2020년까지 여객터미널 확장과 고속탈출유도 추가 계류장 확장 이륙대기고의 신설로 2640억원을 투자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 부족하고 혼잡은 계속 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이 재 흥 제주관광공사 본부장

감사합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했던 항공용역을 짧게 요약해주셨네요. 국토부에서는 대략 2200만에서 2275만으로 2030년 수요를 바라보고 있고, 항공수요가 대략 2068만명, 그리고 기존에 대략 10% 정도가 항만을 이용하기에 이를 포함하여 2275만이라 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양정철 의원님이 말씀해주시죠.

양 정 철 세계환경과 섬연구소 특별연구원

저는 크루즈항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맥킨지 보고에 의하면 2020년이 되면 동북아시아 시장 크루즈 시장이 700만이라고 합니다. 세계 크루즈 선사협회에서는 2020년까지는 460만명 관광객 목표로 하고 있구요. 현재 중국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연평균 증가율 34%로 보고 있습니다.

2016년 제주 크루즈 입항횟수는 550회가 되는데, 이는 제주지역에서 예비선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 강정항이 준공이 되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능력은 계산을 해보면 1100~1200개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통 중국에서 들어오는 크루즈 관광객이 보통 평균 5시간~6시간 일정임을 감안하면 그보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주요 토론내용

국제크루즈가 중국 중심으로 입항을 하다보니 저희가 정작 받아야 할 월드크루즈선이나 일본, 대만 크루즈들이 중국에 비해 10% 내외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크루즈 항만 인프라는 신항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어 향후 저희가 동북아 시장에서 허브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항이 개발이 되면 크루즈 선박의 최대 입항횟수는 연 2천회 이상 가능할 것이라 보며, 2천회 이상이면 모항을 넘어서 허브항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강정항이 완공된 것이 아니기에 월드크루즈나 일본, 대만, 동남아권에 대한 크루즈 선석 배정을 먼저 하여 이에 대한 수용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중국크루즈만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다보니 다른 부분에서 조금 수용능력이 미비한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재 흥 제주관광공사 본부장

다음 제주발전연구원 정승훈 박사님, 지난해 수용력과 관련하여 숙박시설 수용력에 관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정 승 훈 제주발전연구원 연구기획실 실장

제1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2차 계획은 2021년도까지 예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수요예측을 보면 초장기 예측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예측하기 힘듭니다. 오늘은 시작이 반이라고, 미래 제주관광 수요와 관련하여 김향자 박사님이 발제해주셨지만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후속연구라던가 앞으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양성창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2018년도에 제주공항이 포화상태가 될 것이라 대외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2025년도 제2공항 개항에 앞서 2018년도 이후에 2019년~2025년도 수요예측을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지금까지의 수요예측은 관광객 총량을 기준으로 해왔는데, 이와 관련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장기예측같은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적정 수용력에 관한 연구를 몇 년에 걸쳐 수행을 하였습니다. 저희도 이와 관련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관광객뿐 아니라 환경·사회·문화 등과 관련된 연구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앞으로 저희가 공사와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입니다. 특히 지출비용이라던가 체류기간이라던가 숙박 등과 관련하여, 이런 빅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토론내용



이 재 흥 제주관광공사 본부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고승익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고 승 익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마케팅국 국장

국토부 수요 예측인 경우 상당히 적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의 관광객이 2030년에 몇 명이 올 것이냐 했을 때 전제조건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전제조건은 제주도가 관광지로서 가치가 있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가 관광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느냐 하는 전제조건으로 본다면 해저터널이 생길 경우 관광객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국인 입장에서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과가 다르듯, 수요예측에 있어서 전제조건이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2018년까지의 수용력을 점검하는데 있어 슬롯 확대 등의 문제와 대형항공기 투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주 노선 항공기의 60% 이상이 저가항공사로 대부분 737 기종을 사용하고 있는데, 최대 탑승인원이 120~140명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수용력과 관련하여 지가상승, 귀농인구 증가 추세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함께 고려할 때, 현재 제시된 임계치 또한 얼마나 정확할지 의문입니다. 김향자 박사님께서서는 향후 관광객 수요로 3천만 명을 추정하였는데, 저는 이 수치를 어느 정도 높게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토론내용

일정 수준 수요가 측정이 정확하게 되어야 그에 따른 공급정책 또는 사업자들이 어떻게 공급을 가져갈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수요예측이 잘 못되게 되면 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1차 관광진흥계획에서 200만명 이상 낮게 잡아서 상당히 혼란이 왔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교통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교통 부문의 문제도 상당합니다. 매일 통계를 보면 금년에 들어서 관광객 수는 12% 상승하였습니다. 이 추세를 유지하면 금년 말에는 관광객이 1530만명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렌트카가 2만6천대를 넘었고, 8월 성수기 5천대가 더 들어오게 되면 도로 자체가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이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 종 기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책임연구원

김향자 박사님이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제주도가 실제로 앞으로 맞이하여야 할 미래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기적절하게 접근해주셔서 저희한테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제주관광을 질적성장으로 나아가겠다 발표하였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주관광이 양적으로 적정수준인가를 판단하는 부분에서 좋은 발표였다 생각합니다.

특히 정확한 수치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미래수요에 대한 전체적인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성장가능한지 볼 수 있었던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느꼈던 것이 실제로 공항이나 항만이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인프라라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수요예측이 개별적으로 되다 보니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 보면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각 분야에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인프라에 대한 계획들이 발표될 때는 통합적으로 이런 것들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내용 중 가장 중요하게 느낀 것은 **상주인구와 유동인구**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상주인구에 총계가 현재 제주도에 체류하고 있는, 동시간대에 체류하고 있는 그 규모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수용력을 측정할 때 함께 고려되어 미래예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관광사업이 인적자원을 기본으로 한 것이기에 관광객이 증가한다는 것은 관광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적자원을 충분히 갖추고 있느냐라는 것 또한 고려되어야 합니다. 제주도에서 관광산업에서 인적자원관련해서 말을 하지만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나 개발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고려가 되어야 현재 예상되는 관광객들을 맞이할 수 있는 이 결국에는 나중에 제주관광이 질적 성장으로 가는데에도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2015년 하반기 고용률이 발표되면서 고용노동부쪽에서는 서귀포시의 고용률(72%)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관광산업 자체가 섬 지역에서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인적자원의 고용률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요예측은 통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일시적인 예측이 아닌 체계적으로 시기를 잡아서 단기예측과 장기예측을 좀 고려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요 토론내용

서 용 건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김향자 박사님 제주관광 미래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사에서 금년부터 매달 제주관광 미래전략 워크숍을 주최하고 있는데, 제주관광 미래를 위해 가치가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주지하고 있습니다만 제주도의 공항 문제라던지 이런 수용능력에 대한 문제들은 사실 5~6년 전에 논의가 끝나 지금은 상당한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공항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측면이 많아 백년대계가 아닌 천년대계를 보고 추진되어야 하는데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비타당성 평가가 실시될 것으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향후 관광수요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제주도가 단순히 공항을 생각하기 이전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관광이라던지 환경적 가치 사회문화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균형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신 왕 근 제주관광대학교 항공서비스과 교수

제주특별자치도가 양적 관광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바꾸고 있는데 천만 관광시대 이전에는 질적 성장이 가능했는데, 천만을 넘어가면서 질적성장이 가능하겠는가라고 의문이 듭니다.

또한 제2공항 그 외에 복합리조트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서 방문객이 많이 들어와줘야 하는 시설 들인데 만약에 기대한 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적·질적성장 둘 다 불가하게 됩니다.

수요예측에 있어 과거 데이터를 활용하여 단순히 시계열 분석을 통해 증가분만 고려되다보니 생각 못했던 변수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3천만을 얘기하는데 현재 시점에서 2030년까지 15년 남았지만, **제주에 3천만이 들어 올 수 있는 유인력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 수용능력을 기준으로 제주도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방문객을 끌어들이 수 있는 기준점**을 가지고 수요예측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와이가 지금 세계적인 리조트도시로 남아 있는 이유가 감히 가지 못하는 하나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미국의 도시에서 한국에 오는 것보다 하와이로 가는 것이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와이의 브랜드가 고가 관광지로 인식됨으로써 방문객의 수요를 조절**하면서 하와이의 브랜드를 유지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례를 조사하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수요 예측대로 2천만~3천만을 넘어가게 되어 도시형으로 가게 되는 시점이 된다 하면 섬이라는 정체성과 청정환경 등을 포기해야 하고 대도시 중심으로 기능을 바꾸는 쪽으로 제주도의 정책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요 토론내용

그러면 섬 중심으로 벤치마킹보다는 섬이라는 환경적 요인과 함께 도시환경적요인과 믹스가 된 선진 모델을 가지고 과연 방문객 증가와 이로 인한 환경과 주민 삶의 변화와 관련하여 과거의 사례에서 이런 모델이 있다고 하면 찾아서 반영하면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미래 방향은 십년 이상의 중장기 예측도 필요하지만 현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년씩 자르며 그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고 변경해나가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간의 외교적 문제, 물가상승, 지가상승, 환경오염 등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과 함께 10~20년을 바라볼 수 있는 탄력적인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 규 진 제주YMCA 부설 제주교통연구소 소장

전체적으로 보면 관광이라는 것은 균형과 성장이 동시에 가야합니다. 도민들이 관광객이 얼마만큼 증가하냐에 따라 경제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도민들의 경제적 혜택 부분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통부분에 연구하는 입장에서 3천만명 이상이 오게 되면 도로나 인프라는 수용이 가능하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과거와는 달리 정체가 심해져서 과연 이렇게 관광객이 들어올 때 이들을 수송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갖추고 있느냐 연구가 필요합니다. 전세버스라던지 렌트카라던지 택시 등이 관광객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냐 라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주요 토론내용

지금 교통문제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2014년 기준 2300억 수준으로 2020년에는 3200억 까지 증가하는데 이를 도민들이 책임져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비용을 관광객들에게 어느 정도 배분하여 도민들이 이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 인프라라던지 도로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냐를 간과해선 안 될 것입니다.

단순히 계속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내부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통제 수단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예로 총량제를 도입해서 일정 부분에 관광객들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양 필 수 제주관광공사 관광산업처 처장

과거데이터 만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일 분야만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닌 종합적인 분야의 전문가 논의를 통해서 제주 미래에 관한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시계열을 이용한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관광수요예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뿐만이 아니라 제주사회의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트렌드 2030제주』에 관해 논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사회가 2030년까지 어떻게 변화를 해 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을 시발점으로 향후에는 종합적으로 제주의 트렌드를 읽어나가는 연구 활동과 워크숍이 활발히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미래관광분야를 생각해 볼 때, 발표자님께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2030년까지 지금 현재의 제주 방문객보다 거의 2배 이상 증가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워크숍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미래 제주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냐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두 가지 축으로 생각한다면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광의 하드웨어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돈을 덜 들이면서 조성해서 단기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으로 생각하여 제주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등을 도입하여 장애 없는 관광지를 조성하는 부분도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광선진국을 잘 살펴보면, 조금 더 신경 쓴, 모두를 배려한 시설 조성과 환경 친화적으로 개발된 지역입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지금 도정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개선되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제주도에 제공하는 서비스도 하나의 상품으로 봐서 경제성 원리에 입각하여 돈이 되는 것에는 서비스를 잘하고 돈이 안 되는 곳에는 후순위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말이죠, 또한 지금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하나하나 제거하여 개선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주 고유의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여 새로운 소득원 창출과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역할 그리고 이것을 정책적으로 상품화 하는 역할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관광을 통한 주민소득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토론내용



이 성 은 제주관광공사 경영지원처 처장

사실 10년 전을 생각해보면 특별자치도 설립에 따른 규제완화 등으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등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예측 못 했습니다. 다만, 이는 관광산업의 근본적 문제와 연계되어 있어 단계적으로 기존의 정책을 보완해나가는 정도로써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요 예측은 공급의 문제와 연계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계획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번 워크숍은 **제주의 미래를 위한 제2공항 또는 신항같은 새로운 성장거점들이 생겨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공동의 관심을 가지고 후손에게 물려줄 제주 미래에 대해서 합의를 해나가는 시발점을 열어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를 둘러싼 관광시장에는 북경을 중심으로 한 중국 내륙시장과 동남아 무슬림시장, 무궁무진한 연계시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과거데이터를 가지고 3천만을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변화를 확인하고 즉시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1980년대 캐나다의 지리학자였던 버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데스티네이션 라이프사이클 이론을 발표하고 이후, 프리도라는 사람의 리조트 라이프 사이클 이론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보면 시장의 확대에 따라 데스티네이션 라이프사이클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현재 제주상황에 딱 들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향후 수요예측은 단순 시계열 분석보다는 큰 흐름에 있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실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관광을 둘러싼 시장 변수 등의 큰 흐름을 바탕으로 30년 후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토론내용

이 재 홍 제주관광공사 본부장

오늘 토론 결과를 대략적으로 정리해보면, 시장의 규모 및 공급에 따라 향후 2천만이든 3천만이든 가능할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런 수요예측이 초단기적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측되고 그런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지역사회와 수용태세라든지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감을 했던 자리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수요예측을 할 때 수요뿐만 아니라 그 수요에 수반되는 교통·에너지·쓰레기 등의 문제들이 함께 고민되어야지, 제2공항 및 신항과 같은 메가프로젝트 단위로만 고민이 이루어질 때 환경의 질이 왜곡되고 결국 그런 것들이 지역주민과 관광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향자 박사님께서 한 마디 해주시겠습니까?

김 향 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번 워크숍 자료를 준비하면서 향후 제주의 발전 계획 등을 다수 살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앞서 말씀해주신 부분같이 통합적인 개념에서 접근한 연구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미래비전 등에서 제시된 제주도의 향후 발전 방향을 볼 때, 제주관광은 수요에 앞서 수용력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요예측은 단순히 보조적인 역할만을 하며, 제주로의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부문별 영향 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토대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재 홍 제주관광공사 본부장

미래 제주관광의 수요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보다는 과연 제주도가 가진 자원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용력에 따른 우리 제주관광의 모델을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에 초점을 놓고 토론을 해야 할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제주 미래관광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추진된 이번 워크숍은 제주의 다양한 이슈들 중 하나였던 수요예측과 그 수요에 대한 수용력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촉발시키는 시발점이 됐으면 합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올해부터는 제주관광과 관련된 이슈들을 조금씩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제1차 워크숍에서는 질적 성장에 대하여, 제2차 워크숍에서는 관광품질 통합 관리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나씩 다루지 못했던 것을 다루고, 결론을 내기보다는 지역사회가 공동에 함께 이야기할 거리들을 던지는데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 것을 통해서 제주관광공사가 수용력 태세 차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개선하고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고민들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가해주신 김향자 박사님과 모든 전문가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추진성과

○ 제1차 제주관광 미래전략 워크숍 개최

- 일시 : 2016년 1월 19일(화)
- 주제 : 제주관광 질적성장 방안 모색
- 세부내용
 - 주제발표 : 국내외 질적성장 지표 관리 사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보통계·R&D센터장 전효재)
 - 참 가 자 : 한국관광공사·제주관광공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한국소비자원 등 주요 기관 및 도내외 언론, 학계 등

○ 제2차 제주관광 미래전략 워크숍 개최

- 일시 : 2016년 2월 16일(화)
- 주제 : 제주관광 서비스 품질관리 방안 및 안내체계 개선
- 세부내용
 - 주제발표 : 관광품질 통합인증제 도입을 통한 관광발전방안 (한국관광공사 관광인프라실 실장 안덕수)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사례 및 제주지역 적용 방안 (서울특별시관광협회 안내소사업팀장 김현숙)
 - 참 가 자 : 한국관광공사·제주관광공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한국표준협회·서울특별시관광협회 등 주요 기관 및 도내외 언론, 학계 등

○ 제3차 제주관광 미래전략 워크숍 개최

- 일시 : 2016년 3월 21일(월)
- 주제 : 제주 미래관광에 대한 대안적 논의
- 세부내용
 - 주제발표 : 제주의 미래 관광, 준비에 대한 논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김향자)
 - 참 가 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제주관광공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제주상공회의소·제주발전연구원 등 주요 기관 및 학계 등

■ 향후 추진계획

- 제주관광 이슈 관련 월별 워크숍 지속 추진 및 기관간 네트워크 강화
- 월별 워크숍 개최 결과 공사홈페이지 게재(www.ijto.or.kr)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



면세쇼핑과
최대 **50%**
할인을 더하다!!

이런 혜택,
중문면세점에서
누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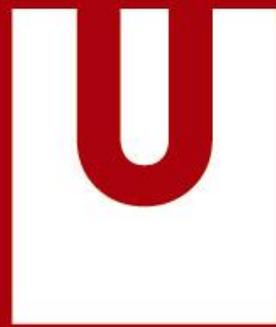


국내 관광객 누구나 이용 가능
중문관광단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층
문의 064 780 7700 www.jejudfs.com

제주관광공사면세점 수익금은 제주관광 발전을 위해 쓰입니다.



**FOR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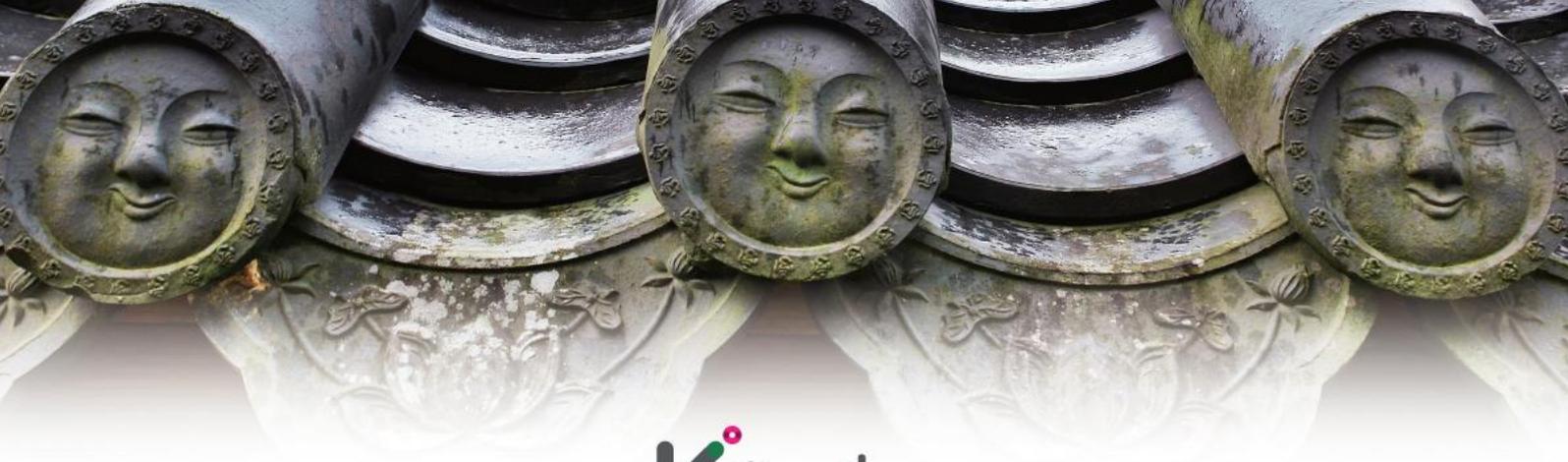
**Duty free of you, by you, for you,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THE JEJU DUTY
FREE**

濟州觀光公社

www.jejudfs.com





K Smile

한국이 웃으면 세계가 웃어요

K스마일 캠페인은 우리의 친절과 미소로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여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참여 친절운동입니다.



"2016-2018 한국 방문의 해" 홍보대사
그룹 AOA 멤버 설현

